

『捷解新語』의 「時間領域副詞」에 대하여

—한·일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이 종 희*

(e-mail : lemonbalm03@hanmail.net)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
| 2. 『捷解新語』에 나타나는 「時間領域副詞」 | 3.1.2. 「早/수이」와 「程なく/수이」 |
| 2.1. 선행연구와 연구 목적 | 3.1.3. 「さうさう(早々)/수이, 早早, 일찍이, 일일」 |
| 2.2. 「時間領域副詞」의 하위분류 | 3.2. 「지속부사」의 개수양상 |
| 3. 「時間領域副詞」의 개수양상 | 3.3. 「진행부사」의 개수양상 |
| 3.1. 「순간부사」의 개수양상 | 4. 「時間領域副詞」의 통사적 특징 |
| 3.1.1. 「すなわち/즉시」 | 5. 맺음말 |

キーワード：捷解新語(Cheop-hae-sin-eo), 時間領域副詞(time domain adverbs), 意味用法による改修(The correction of semantic use of vocabulary), 具体化・明瞭化による改修(The correction for embodiment and clarification), 構文構造による改修(The correction by form syntax)

1. 머리말

이종희(2007)에서는 「時間副詞」란 発話時를 기준으로 하여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시점이나 시간적 순서, 혹은 행위가 행해지는 시간영역(시간적 범위)을 나타내는 부사」로 정의하였다.¹⁾ 또한 「時間副詞」는 각 부사의 의미 속성과 통사적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順序副詞」 「時間領域副詞」 「時点副詞」로 분류할 수 있는데²⁾ 본고에서는 『捷解新語』에 나타나는 「時間副詞」

*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일본어교육학

1) 이종희(2007) 「『捷解新語』의 「順序副詞」에 대하여」 『日語日文学研究』 第63号1卷, 韓国日語日文学会, p.449.

2) 「순서부사」는 「さき(먼저), はじめて(처음으로)」, 「시간영역부사」는 「さっそく(早速), つねに(상해)」, 「시점부사」는 「いま(이제)」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중 「時間領域副詞」의 종류를 살펴보고 그들의 개수변천의 양상과 통사적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대응하는 한국어어와 함께 이들 부사의 개수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당시의 어휘적 속성과 역사적 변천 과정이 더욱 잘 드러날 것으로 기대되며,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그 사료적(史的)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捷解新語』에 나타나는 「時間領域副詞」

2.1. 선행연구와 연구 목적

『捷解新語』는 성립 시기나 편찬 경위, 장면 분석, 또는 경어표현과 제반 문법 현상 등에 대해 뛰어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자료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왔다.³⁾

특히 『捷解新語』 부사에 관해서는濱田敦(1970, 1983) 박재환(2003)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나 훌륭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과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濱田敦(1983:222)는 부사 「ゑい」에 대하여「本来正しくは「よう」であるものを、言わば「誤って」「ゑい」と表記、あるいは発音したもの」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종희(2005)에서는 당시 「ゑい」가 부사「得·能」에서 파생되어 다른 문헌에도 출현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정당한 용법임을 입증하였다.⁴⁾

박재환(2003:20)의 경우 「後から、おっつけ」에 대응하는 한국어 「미처」, 「まず」에 대응하는 한국어 「아직」 등에 대해 현대한국어 용법만을 고려하여 「誤用」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나 두 어휘 모두 당시 「後から」「まず」의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간과한 것이다.⁵⁾ 이렇듯 『捷解新語』는 어느 한 쪽

3) 일본에서는 小倉進平(1964) 中村榮考(1969) 森田武(1973) 濱田敦(1970,1983) 安田章(1980) 辻星児(1997), 한국에서는 鄭光(2002) 한미경(1995) 이태영(1997) 조남덕(1994) 김기민(2004) 林昌奎(1998)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4) 이종희(2005:10)에서는 「父の最期もゑい知らず、なに面目に存(な)からへん」 <歌舞伎·独道中五十三駅、序幕> 등을 예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5) 이종희(2005:12)에서는 「太子は象をもつて城を倒して、引き続き駆け付けて海の前で敗れないようにした<釋譜 3>」 「네 아직 가 혼두 나를 헤아려(あなたかまず行つて一日二日考えて)<六祖 上19>」 등을 그 예로 입증하였다.

의 언어만으로 이해하거나 분석하였을 때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어휘나 문법에 대하여도 동일 시대의 다양한 문헌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자료적 특징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지경래(2002)에서는 『捷解新語』의 전체 1633 종류의 어휘 중 28%에 해당하는 455 종류의 어휘가 개수되었다고 분석하였는데, 이종희(2005)에서는 부사의 경우 총 208 종류의 어휘 중 97종류 어휘가 개수되어 47%라는 높은 개수율을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 부사의 개수 양상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부사는 다른 어휘에서 파생되어 형성된 어휘가 많다는 범주의 특성, 화자의 기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의 다의성(多義性)으로 인하여 더욱 활발한 개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부사의 개수 과정을 하위분류하여 살펴보는 것은 『捷解新語』의 사용된 어휘의 특징과 개수 경향을 분석하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바이다.

일본에서 시간부사에 관한 연구는 일찍부터 행해져 왔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中右実(1980), 増岡陸志·田窪行側(1989), 金水敏(2000), 仁田義雄(2002)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中右実(1980)와 増岡陸志·田窪行側(1989) 시간관계를 나타내는 성분을 각각 「時・アスペクトの副詞」 「テンス・アスペクトの副詞」로 칭하며 각 어휘들의 의미 속성과 時制(Tense), 相(Aspect)과의 연관성들을 집중하여 고찰하였으나 時制(Tense), 相(Aspect)과의 공기 관계에 치우친 나머지 시간부사 중 공기(共起)관계를 이루는 일부의 부사만을 다루어 고찰한 경향을 보인다. 金水敏(2000)는 시간적 표현을 「時の表現」으로 칭하고 「時点・時期」 「時間量」이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시간부사의 특성을 세밀히 나누어 분석한 진일보한 연구라고 할 수 있으나 부사만을 고찰 대상으로 삼지 않고 「1984年」 「～から」 「～まで」와 같은 성분을 모두 다루고 있어 다소 포괄적이라 할 수 있겠다.

仁田義雄(2002)는 「時の状況成分」과 「時間關係の副詞」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시간표현을 설명하고 있는데 「時の状況成分」이란 「事態の外的な時間的位置づけ、言い換えれば時間軸上における事態の出現・存在位置を示すもの」라 규정하고 「発話時を基準とする時の成分」 「不定時を基準とする時の成分」 「絶対的時点の時の成分」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한편 「時間關係の副詞」는 「ずっと」와 같이 「時間存続の時間量」을 나타내는 부사, 「だんだん」과 같이 「時間の中における事態の進展」을 나타내는 부사, 「すぐ」와 같은 「起動への時間量」을

나타내는 부사가 있다고 논하고 있다. 仁田(2002)의 분류는 선행연구 중 시간 부사를 가장 세밀히 검토한 것으로서 시간에 관한 표현을 총체적으로 또한 조직적으로 파악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본고의 고찰 대상인 「시간영역부사」는 仁田의 「時間關係の副詞」와 가장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으나 본고는 부사 자체의 속성과 기능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다만, 『捷解新語』에 나타나는 부사들을 논함에 있어 논리전개의 편의성을 위하여 의미상, 유형상의 하위분류를 진행하고 그것들이 개수과정 혹은 통사적 기능에 있어 유의미한 공통의 특징을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2. 「時間領域副詞」의 하위분류

「시간영역부사」는 어떤 행위를 이루거나 실현하는 내적 시간의 양 혹은 시간의 범위를 나타내는 부사로서, 행위가 일어나는 시간의 길이나 속도 혹은 경과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할 수 있다. 각 부사가 지니고 있는 의미 속성에 따라 내적 시간이 짧은 경우는 「순간부사」로, 긴 경우는 「지속부사」⁶⁾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행위가 반복되거나 진행되는 경우는 「진행부사」로 분류하고자 한다.⁷⁾ 다음은 『첩해신어』에 나타나는 그 대표적 예문에 해당한다.

(1) もつともさうさう御めに加加る加ほんきなれとも、⑤6裏4

맛당히 수이 봄이 本意 | 언마는

(2) ひさひさくらしうしたけにんとも、⑧3表3

오래 슈고 하던 아래 사름들희

(3) したいにな於るやうに御されとも、③3裏3

점점 흐리는 듯 하옵건마는

(1)의 용례는 「마땅히 빨리 뵈는 것이 예의이지만」의 의미로서, 「さうさう(부々)⁸⁾/수이(빨리)」는 화자가 행위를 짧은 시간에 서둘러서 행하기를 바라는

6) 이종희(2005:208)에서 일본어로는 「継続副詞」로 칭하고 있다.

7)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는 문법론적인 부사의 속성과 범주를 논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며, 『첩해신어』에 나타난 부사에 대하여 그 의미를 기준으로 하위분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일반적 「시간부사」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단, 의미상의 분류가 통사적 특징과 어떻게 관계를 보이는지 고찰하는데 유의미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이다.

기분을 나타내는 부사로서, 내적 시간의 양이 적은 부사에 해당된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부사들은 『첩해신어』에서 「さうそく(さっそく)/早速」 「早/수이」 「程なく(まもなく)/수이」 등이 나타나고 이들 부사를 「순간부사」로 분류한다.

(2)의 용례는 「오랫동안 수고하던 아랫사람들에게」로 해석할 수 있으며 용례 중의 「ひさひさ(久々)/오래」는 화자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했을 때 발화하는 부사로서 행위가 일어나는 내적 시간이 길다고 느끼며 사용하는 부사라고 할 수 있겠다.⁹⁾ 이러한 부사를 「지속부사」라고 칭하며, 「지속부사」에 해당하는 부사는 「終日/終日」 「常に/상히(늘, 항상)」 「長々/오래」 「常々/常常」 등이 나타난다.

(3)의 용례는 「점차 낮는 듯합니다만」의 의미로서 「したいに(次第に)/점점」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부사에 해당한다. 이처럼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변화나 반복을 나타내는 부사를 「진행부사」라고 칭하며, 『첩해신어』에 나타나는 「再々/즈로(자주)」 「次第に/점점」 「日に/날마다」 「日に日に/날마다」 등을 「진행부사」 종류로 보고자 한다.

이들 부사는 내적 시간의 양의 성질과 범위, 혹은 행위가 일어나기까지의 시간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순서부사」와 마찬가지로 시제(テンス)나 상(アスペクト)의 표현과 직접적 관계를 갖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¹⁰⁾ 따라서 발화시에 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과거문이나 이루어지지 않은 비과거문에도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시간영역부사」의 통사적 특징 또한 고찰하고자 한다.

3. 「時間領域副詞」의 개수양상

3.1. 「순간부사」의 개수양상

8) () 안은 필자에 의한 현대어 해석에 해당한다. 이하 같음.

9) 내적 시간의 길고 짧음은 상대적 개념에 해당되며 절대적 기준점을 제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부사는 어휘적 성격 상 화자의 기분이나 감정을 주로 나타낸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행위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발화되기 때문이다.

10) 이중회(2007:453)에서는 『첩해신어』에 나타나는 「あとから、さき、初めて」와 같은 「순서부사」는 상(Aspect)이나 시제(Tens)와 직접적 관계를 갖지 않고 동작성이 있는 동사와 결합하여 행위의 순서를 나타냄을 논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순간부사」란 행위가 일어나는 속도가 빠르거나 시간이 짧음을 나타내는 부사로서 『첩해신어』에는 총 6 종류의 부사가 나타나며, 24회 사용되고 있다.¹¹⁾

이들 부사의 종류와 사용빈도는 다음과 같다.

- さうそく(早速)/早速¹²⁾ [1] 13)
- すなわち/즉시<さつそく(早速)/즉시, 즉제>¹⁴⁾ [3]
- さうさう(早々)/수이, 早早, 일즉이, 일일<はやはや(早々)/早早> [6]
- そつと(そつと)/잠깐, 卒度<ちよつと(ちよつと)/잠깐, さんし(暫時)/暫時> [2]
- はや(早)/수이<もはや/벌써> [10]
- ほどなく(程なく)/수이, 즉시<やがて(やがて)/수이> [2]

「순간부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早々/수이」는 10용례 중에서 1용례만이 「もはや/벌써」로 개수되어 있어 당시 「早々/수이」는 일본어와 한국어 모두 「순간부사」로서 매우 안정적인 사용 용례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현대 일본어에서 접속사로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すなわち」는 3용례 모두 「さつそく」로 개수되어 있어, 개수·중간본의 시기의 일본어 「すなわち」는 의미용법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어의 「そうそう(早々)」에 대응하는 한국어는 「수이, 早早, 일즉이, 일일」 등의 4 종류의 어휘가 사용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다음은 각 부사의 개수 양상을 대응하는 한국어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봄에 각 용례의 개수 원인과 의미용법의 변천에 대해 살펴 보겠다.

3.1.1. 「すなわち/즉시」

일본어의 「すなわち」는 현대어의 의미로서는 「言い換えれば、つまり」라는

- 11) 본 논문은 원간본의 일본어 부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며 대응하는 한국어와 개수, 중간본에서의 개수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원간본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개수, 중간본에만 나타나는 「暫時/잠깐」이나, 한국어에서만 나타나는 「又」 등은 고찰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또한 현대 일본어의 「순간부사」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すぐ」는 『첩해신어』에서 「시간부사」로 사용되지 않고, 「そのままに、まっすぐに」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状態副詞」로 다루고자 한다.
- 12) / 뒤의 어휘는 대응하는 한국어에 해당한다. 이하 같음.
- 13) [] 안의 수는 사용빈도를 나타낸다. 이하 같음.
- 14) <> 안의 표현들은 개수, 중간본에 개수된 어휘를 나타낸다. 이하 같음.

접속사의 의미나 양태부사의 의미를 지닌 것에 반해, 『첩해신어』에서는 「時間をおかず、直ちに物事が実現されるさま」, 즉 「すぐさま」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원간본의 「すなわち」는 개수·중간본에서 모두 「さっそく」로 개수되어 있다. 한편 대응하는 한국어는 개수·중간본에서도 표현이 변하지 않고 모두 「즉시」가 사용되고 있어 일본어 「すなわち」만이 의미용법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그 대표적 용례에 해당한다.

(4) <原>¹⁵⁾みゑたらはすなわちふさん加いよ里こちにさう於於しらるほとに、①9裏2

뵈면 즉시 釜山浦로써 우리게 기별을 니를거시니

<改>みゑたらはさつそくふさんよ里このはうにさう加まい里ませうほとに、①12裏3

뵈면 즉시 釜山으로써 우리게 기별이 올거시니

<重>みゑたらはさつそくふさんよりこのはうにさうかまいりませうほとに、①11裏3

뵈면 즉시 釜山으로써 우리게 기별을 올꺼거시니

전술한 바와 같이 『첩해신어』의 「すなわち」 3용례는 모두 (4)와 같이 「さっそく」로 개수되어 있다.

「すなわち」가 언제 어떤 형태로 의미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사전적 정의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日葡辞書』의 「すなわち」정의를 살펴보면 「Sunauachi スナワチ(即ち) 副詞、すぐさま、真に、など」로 나타나며, 『古語大辞典』 또한 「(即ち・側ち)(副詞)則座に。ただちに。たちまちに。すぐに。」로 나타난다. 따라서 「すなわち」는 『첩해신어』당시에 「すぐに」라는 부사적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日本国語大辞典』의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명사로서의 의미¹⁶⁾가 가장 먼저 서술되어 있고 두 번째로 접속사로서의 의미가 서술된다. 마지막으로 부사의 의미를 「①即座に。すぐに。②その所、または、その時にちょうどあたって。まさに。」로 기술하는데 그 용례를 살펴보면 「すなわち」의 부사적 용법이 이미 쇠퇴했음을 알 수 있다. 즉, 「すぐさま、即座に」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던 「すなわち」가 개수·중간본 시대에는 그 의미 용법의 쇠퇴와 변화에 의해 「さつそく」로 개수가 불가피하였으므로 3용례는 모두 개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大辞林』에 의하면

15) <原>은 원간본을, <改>는 개수본을, <重>은 중간본을 각각 나타낸다. 이하 같음.

16) 【名】①ある動作の終わったとき。②過去のある時をさす。その時。当時。

「本来、名詞で、「即時」の意の「即」の訓として用いられたものが、他の意の場合の「即」や「乃」「則」などの訓としても用いられるようになり、そこから接続詞や副詞としての用法が成立した」

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명사로서 시작된 「即時」는 부사와 접속사의 「すなわち(則ち、即ち、乃ち)」로 의미가 확장되었다가 현대에는 접속사로서의 의미가 가장 강하게 남게 된 것이다. 『첩해신어』에서 원간본의 어휘가 개수·중간본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통일적으로 개수된 것은 그 시대의 어휘적 사용 경향을 보여주는 좋은 용례라 할 수 있겠다.¹⁷⁾ 특히 대응하는 한국어가 일본어의 영향으로 다른 어휘로 개수되거나 하지 않고 모두 「순간부사」인 「즉시」가 모든 용례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상 「すなわち」의 개수된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すぐ」라는 의미의 「すなわち」는 개수·중간본의 시대에는 그 의미용법의 변화로 「さっそく」로의 개수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경우의 개수는 「어휘의 의미용법의 변화로 인한 개수」로 파악하고자 한다.¹⁸⁾

3.1.2. 「早/수이」와 「程なく/수이」

전술한 바와 같이 「早/수이」는 전체 10용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9용례가 개수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순간부사」로서 매우 안정적 사용 용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중 1용례만이 「もはや/벌써」로 개수되어 나타나므로 어떠한 이유로 하나의 용례만이 개수되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程なく/수이」는 2용례 중 1용례가 「やがて/수이」로 개수되어 나타나므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다.

(5)〈原〉つしまの加みはや於く里のためにふね於たいたと申、⑧29裏2

尙馬島主 벌써 보내를 위야 비를 내다옵니

17) 梅田博之·林昌奎(2000)에서는 『첩해신어』는 1676년 발행된 원간본과 1748년 개정된 개수본, 1781년 2차 개수된 중간본이 존재함으로 이러한 양국의 어휘 변천을 살펴볼 수 있는 최적의 자료임을 논하고 있다.

18) 이종희(2005:388)에서는 『첩해신어』의 개수 경향을 「어휘의 의미변화에 의한 개수」「문맥에 의한 개수」「의미의 구체화·명료화를 위한 개수」「보다 정중한 표현으로의 개수」「문의 구문 구조에 의한 개수」등 5가지의 종류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改>つしまの加みもはや於く里のためにふね於たいたしまし、43裏2

对馬島主 불서 보내물 위여 비를 내며

<重>-----<대응하는 중간본 없음>-----

(6)<原>ほとなくま加里つきまるせう加、そのとき御れい申あげまるせうたう里、⑦14裏3

수이 가 브틀찌시니 그저괴 御禮 술올줄을

<改>や加てま加里つきませうほとに、そのせつ御れい申あげますこと於、21裏3

수이 가 분틀거시니 그저괴 御禮 술올줄을

<重>-----<대응하는 중간본 없음>-----

(5)의 「수이」는 전체 10용례 중 개수되어 있는 유일한 용례로서 그 의미를 현대 일본어로 해석한다면 「太守はすでに見送りのため、船を出したと申します」로 파악할 수 있다. 용례 중의 「무」를 시간을 두지 않고 동작을 서둘러 행하는 「はや」의 의미보다는, 어떤 행위가 이미 완료된 「すでに」의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 여겨진다. 반면 (5)용례를 제외한 다른 9용례에서는 동작을 서둘러 행하는 「はや」의 의미로 「はや」가 사용되었으며, 대응하는 한국어는 모두 「수이」로 나타나 개수 중간본에서 그 용법의 의미를 확실히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⁹⁾ 즉, 「すぐ」라는 의미로 사용된 「はや」는 대응하는 한국어가 모두 「수이」로 통일되어 있으나 「すでに」의 의미로 사용된 용례 (5)에서만 원간본과 개수본은 문맥의 의미에 맞게 「불서」가 사용된 것이다. 이는 『첩해신어』에 나타나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대응관계를 잘 보여주는 용례로서 하나의 일본어 어휘에 기계적으로 같은 한국어를 대응한 것이 아니라, 동일 어휘더라도 문맥상의 의미에 따라 적절하게 한국어를 대응하였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개수본에서는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간본의 일본어가 「もはや」 개수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19) <原>その御扁んしよははやもたしられて御され。⑤10裏1

그返書を 수이 가져 오옵소

<改>その御扁んしよははやもたせて御さ里ませい。15裏1

그返書を 수이 가져 오옵소

<重>その御へんしよははやもたせて御さりませい。13表3

그返書を 수이 가져 오옵소

위의 예문은 「その返書を早く持ってきてください」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개수, 중간본에서는 「はやう」로 형태변화가 일어나며 대응하는 한국어는 모두 「수이」로 나타나고 있다.

(6)의 용례는 「そのうちお着きになるでしょうから、その時お礼を申し上げますことを」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程なく」는 시간이 경과하여 다음 행위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상황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파악할 수 있겠다. 따라서 개수본의 「やがて」로의 개수는 문맥에 맞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수가 되지 않은 다른 한 용례에서는 「程なく」가 시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すぐ」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대응하는 한국어도 「즉시」가 사용되어 그 형태의 변화가 없다.²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간본의 동일한 어휘가 문맥 속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개수, 중간본에서 수정, 개수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첩해신어』의 개수 양상을 매우 잘 드러내는 것으로써 원간본의 어휘가 오용이거나 비문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어학 교재라는 『첩해신어』의 특성에 맞게 학습자가 정확하게 어휘를 익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수의 한 일환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문맥 속에서의 의미를 정확히 드러내기 위한 개수를 「의미의 구체화·명료화를 위한 개수」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첩해신어』 부사의 개수 경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수 이유이며, 대응하는 한국어와 함께 고찰함으로써 그 개수의 의도를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3.1.3. 「さうさう(早々)/수이, 부부, 일즉이, 일일」

「早々」는 『첩해신어』에서 총 6용례가 나타나는데,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가 4종류로 다양하게 나타나 주목을 끈다. 지면 관계 상 이들 용례는 원간본만 살펴보기로 한다.

(7)於ろ加にさしられすにあすさうさうたつねさしられ、①14裏2

얼현이 마르시고 내일 부부 츠즈쇼서

(8)さてきてさうさう御いんきんなる御さつね、⑦16裏2

어와어와 즉시 懇懃히 무로시니

20) 원간본에서 「ひにひにここともとゑ御さてももの加た里もめされたれば、ほとなく於もわしらるまゝ、な里まるせうわめのまゑて御さるほとに、⑨15表3」로 나타나며 이 용례는 「毎日ここへ来てお話しすれば、すぐ思ったように話せるようになりますので」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개수본에서도 「程なく」는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9)もつともさうさう御めに加加る加ほんきなれとも、⑤6裏4

맛당히 수이 봄이 本意 | 언마는

(10)さうさうまいてもんあん申加ほんきなれとも、⑧16表1

일일 와 問安호미 本意읍건마는

각 용례들을 현대어로 살펴보면 「무々」가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용례 (7)의 경우, 「粗略になさらないで、明日무々お探してくださ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여기서 「무々」는 행위가 일어나는 속도의 빠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은」 즉 「이른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첩해신어』에서는 이러한 의미로 「무々」가 3용례 나타나는데 대응하는 한국어는 모두 「무무」로 통일되어 있으며 개수본과 중간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용례 (8)은 뒷부분과 함께 살펴보면 「あ、すぐさまご丁寧なあいさつ、ありがたいお心遣、恐縮に存じます」라며 상대방의 빠른 답변과 인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장면이다. 여기서의 「무々」는 「시간의 지체함 없이 바로」라는 의미로 「直ちに」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대응하는 한국어는 일본어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즉시」로 나타나 매우 적절한 대응임을 알 수 있다.

용례 (9)에서의 「무々」에 대응하는 한국어는 「수이」로 나타나며, 한국어의 「수이」는 전술한 「はや」「ほどなく」에 대응하는 한국어로, 「순간부사」로서 가장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어휘에 해당한다. 즉 「수이」는 행위가 빠른 속도로 행해지는 「무く」의 의미로 널리 안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용례(9) 또한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용례 (10)에서는 한국어 「일일」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일」의 형태는 한국어의 고어사전이나 중세어 사전에서 표제어로 찾아볼 수 없으며 「일」의 형태나 「일일즉」의 형태로만 나타난다.

『教学古語辞典』 일 【부】 일찍이. 일즉

『李朝語辞典』 일 【부】 일찍

일일·즉 【부】 일찍²¹⁾

(10)의 용례는 「はやばやに参って、ご挨拶申すべきですが」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어떤 행위를 서둘러서 행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10)의 용례에서 왜 대응하는 한국어를 「즉시」나 「수이」가 아닌 「일일」로 사용하고 있을까? 「무々」의 용례를 살펴보면 각각의 문장의 의미에 따라 대응하는 한국어 또한 정교하게 나누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일」이 중세어 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잘못 사용된 용례라고 속단하기는 어려우며 부사에는 특히 첩어(疊語)의 형태로 그 의미를 강조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일일」의 경우 「일」의 반복형으로 강조되어 사용되었던 부사였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되어 진다. 그러므로 (10)의 용례는 「일」의 첩어인 「일일」의 부사적 형태로 사용된 용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또한 「무々」의 용례는 대응하는 한국어로 인해 일본어의 동일한 어휘가 어떠한 의미로 나뉘어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첩해신어』 연구는 일본인 학자에 의한 일본어 연구와 한국인 일본어 연구자에 의해 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대체로 일본어만을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져 온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대조언어학의 자료로서 최적화되어 있는 『첩해신어』를 어느 한 쪽의 언어로만 해석하고 이해한다면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고 반쪽만을 보고 판단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이렇듯 개수·중간본에서의 한국어의 대응과 원간본 내에서도 장면에 따른 정교하고 치밀한 한국어 대응을 살핌으로써 『첩해신어』에 사용된 다양한 표현과 문법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이 『첩해신어』의 진정한 사료적(史料的) 가치라고 할 수 있겠다.

3.2. 「지속부사」의 개수양상

「지속부사」란 「순간부사」와 반대로 화자가 행위가 일어나는 내적 시간의 양이 길거나 많다고 느끼고 판단했을 때 발화하는 부사를 지칭한다. 이들 부사는 『첩해신어』에 총 6종류가 나타나며 전체 사용 빈도는 16회에 해당한다.

・しじつ(終日)/終日 [2]

・つねつね(常々)/常常 [3]

21) 「일일즉」의 예문으로서는 「王生이 일일즉 顔色을 절하니(王生早會拜顔色)<杜초五11>」를 볼 수 있다.

- つねに(常に)/상히, 상해, 상시<さきころよ里(先ごろより)/거번분터> [3]
- なかな加(長々)/오래 [1]
- ひさしう(久しう)/오래 [6]
- ひさひさ(久々)/오래 [1]

이들 부사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부사는 「ひさしう/오래」인데 6용례 모두 대응하는 한국어나 개수·중간본에서의 변화가 없이 「지속부사」로서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지속부사」는 전체적으로 사용빈도가 낮으며 「つねに」를 제외하면 대응하는 한국어나 개수·중간본에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렇다면 6종류의 「지속부사」 중에서 유일하게 개수되는 「つねに」가 과연 왜 「さきころよ里(先頃より)」로 개수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つねに/상해」는 3용례 중 1용례만이 개수본에서 「さきころよ里/거번분터」로 변화된다.

(11)<原>また加くものわなせにつねによはしられてき加せなされん加。⑧25裏1

또 풍뉴는 사람은 엇디 상해 불러들이디 아니호신고

<改>また加く於いたしますものわなせにさきころよ里よひなされませぬ加。37裏1

또 풍뉴는 사람은 엇지 거번분터 부르디 아니호신고

<重>-----<대응하는 중간본 없음>-----

이 용례는 「また、音楽を演奏する者は、どうしていつもお呼びになりお聞かせにならなかったのですか」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연주자를 부르지 않은 상황에 대해 조선 측이 일본 측에게 묻는 장면에서 해당한다. 그러나 원간본의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つねに」의 앞에 「의문 요소와 호응하는 부사」인 「なぜに」가 존재하므로 문장구조상 「いつも」로 해석되는 「つねに」가 수식하는 내용이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의적 해석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a 《なぜ{常に呼んで}聞かせなかったのですか》
- b 《なぜ[常に{呼んで聞かせなかったのですか}]》

즉 a의 경우 「つねに」는 바로 뒤에 나타나는 「呼ぶ」만 수식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연주하는 자들을 왜 언제나 부르지 않고 가끔 불렀는지」를 묻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b의 경우 「つねに」가 후술하는 「呼んで聞かせる」전체를 수식하는 것으로 「항상 불러서 들려주지 않았는지」를 묻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간본의 문장은 위의 두 가지 형태로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므로 일본어 교재인 『첩해신어』의 성격을 생각했을 때,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나타내고자 「つねに」가 개수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17)의 개수본에서는 「つねに」가 「さきごろより」로 개수됨과 동시에 피수식어도 「呼んで聞かせる」가 「呼ぶ」로 개수되어 「《なぜ[前回から(お呼びにならなかったのですか)]》」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저번부터 왜 연주자를 부르지 않았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내용으로 명확해지며 원간본의 문장이 간결하게 개수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つねに」가 3용례 중 (11) 용례만이 개수된 점, 「つねに」와 유사한 「常々」는 3용례가 개수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점, 대응하는 한국어가 「늘, 언제나」의 의미를 지닌 「상해」에서 보다 구체적 의미를 나타내는 「저번부터」로 바뀐 점 등을 근거로 하면 원간본의 중의적 의미를 해소하려는 개수 의도라고 파악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개수는 전술한 「순간부사」에서 보인 어휘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한 개수와는 차이를 보이므로 중의적 의미를 해소하고자 하는 「구문구조(構文構造)에 의한 개수」로 파악하고자 한다.

3.3. 「진행부사」의 개수양상

「진행부사」는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변화하거나 반복되어 행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이들 부사는 지니고 있는 의미 속성에 따라 단순한 반복을 나타내는 「반복진행」과, 반복되면서 변화해 가는 「변화진행」의 두 종류가 나타난다. 『첩해신어』에 나타나는 「진행부사」는 4종류로서 총 6회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사용빈도와 출현횟수가 낮다.

·さいさい(再々)/즈로 [2]

·したいに(次第に)/점점 [1]

·ひに(日に)/날마다<ひひに(日々に)/날마다> [1]

·ひにひに(日に日に)/날마다<こいにち/날마다> [2]

「さいさい(再々)/즈로(자주)」「ひに(日に)/날마다」「ひにひに(日に日に)/날마다」는 행위가 반복해서 행해지는 「반복진행」을 나타내며, 「したいに(次第に)/점점」는 행위가 변화된 형태로 진행되어 감을 나타내는 「변화진행」부사로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주기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속성을 지닌다. 이들 부사 중에서는 「ひに(日に)/날마다」와 「ひにひに(日に日に)/날마다」만이 개수되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을 확인해 보기로 하겠다.

「ひに(日に)/날마다」와 「ひにひに(日に日に)/날마다」는 개수·중간본에서 「ひひに(日々に)/날마다」와 「こいにち/날마다」로 개수되어 나타난다. 대응하는 한국어는 모두 「날마다」로 변화가 없으나 일본어의 형태만 변화하는 것이다.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2)<原>このうゑわはち於と里於きひにまいて、⑨16表2

이 우희는 붓그림을 저티고 날마다 와서

<改>このうゑわはち於加もわすひひにまいて、23表1

이 우희는 붓그림을 저티고 날마다 와서

<重>-----<대응하는 중간본 없음>-----

(13)<原>ひにひにここともゑ御さてももの加た里もめされたれば、⑨15表2

날마다 여기 와서 말씀이나 하시면

<改>こいにちここともゑ御さてももの加た里もめされたれば、21裏2

날마다 여기 와서 말씀이나 하시면

<重>-----<대응하는 중간본 없음>-----

위의 두 용례는 모두 卷9에 나타나는 용례로서 (13)은 일본 측에서 조선 측에게 「날마다 이곳에 와서 말을 하면 (일본어가) 생각대로 금방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고, (12)는 그 말에 대한 응대로써 「앞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날마다 와서 연습할 것이니 실수하더라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대답하는 이어지는 장면이다. 그러나 두 용례의 원간본과 개수본에서 한국어 「날마다」는 변함이 없지만 일본어는 원간본에서 「日に」와 「日に日

に」 두 종류로 나타나며, 개수본에서도 「日々に」「こいにち」로 각각 개수된다.

이들 어휘를 우선 사전에서 찾아보면 (12)의 「日に」는 『日葡辞書』 『古語大辞典』 『日本国語大辞典』 등 어디에서도 표제어로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12)의 용례의 「日に」는 명사「日」에 조사「に」가 결합된 형태로 당시 부사형으로 안정적인 사용 용례를 보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개수본에서는 「날마다」의 의미로 널리 사용된 「日々に」로 개수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日に」가 사용된 용례는 1용례밖에 나타나지 않으며 그 용례가 개수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13)의 「日に日に」는 『日本国語大辞典』에서 「(日日)日ごとに。毎日 毎日。」로 풀이되어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으나, 개수본의 「こいにち」는 찾기 어렵다. 『첩해신어』에서 원간본에서 사용된 어휘 중 그 용례를 찾기 어렵고 개수·중간본에서 다른 어휘로 개수되어 있는 용례는 종종 볼 수 있으나, (13)과 같이 원간본에서 개수된 개수본 어휘의 사용 용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는 매우 드문 일에 해당된다. 개수본의 「こいに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할 수 있겠으나, 『日葡辞書』와 『日本国語大辞典』에서 「日日」가 「ひにち」로 표기된 것을 근거로 「日日」를 「こいにち」로 표기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 진다.²²⁾ 「日に日に」는 2용례가 나타나며 그 중 1용례만이 「こいにち」로 개수되고 나머지 용례는 「日に日に」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4. 「時間領域副詞」의 통사적 특징

『첩해신어』에 나타나는 부사를 현대 문법의 잣대를 사용하여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를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시간영역부사」가 나타나는 문장의 구문구조를 살펴봄으로써 현대 일본어의 구조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혹은 현대 문법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문법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으로 그 의미를 찾고자 한다.

22) 김기민(2004:249)에서는 「こいにち」를 방언일 가능성에 대해 제기하고 있으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4.1. 「순간부사」의 통사적 특징

『첩해신어』에 나타나는 「순간부사」의 가장 두드러진 통사적 특징은 「순서부사」와 마찬가지로 시제나 상과 직접적 관계를 갖지 않으며 주로 동작성이 있는 술어와 결합한다는 점으로 보인다. 다음은 「순간부사」의 대표적 용례를 검토하며 그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4) さうそくきわめんゑは、ひせんのはつにあわんほとに、④15表2

(15) すなわちあわしられいんて加わんこと於、⑦10表2

(16) さうさうこそしゆつせん申うすれ。⑥13裏3

(17) ゑと里まるするまいほとにはやもとさしられ。④11表2

(18) 於もいのほ加はやまたほとに、⑤10裏2

(19) ほとなくま加里つきまるせう加、そのとき御れい申あけまるせうたう里、⑦14裏3

(14)는 「早速に片付けなければ、飛船の予定に間に合わないので」로 해석할 수 있으며, 「さうそく(さっそく)」는 「片付ける」의 의미를 가진 동사 「きわめる」를 수식하고 있다. 또한 「きわめる」는 가정조건의 종속절²³⁾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5)는 전후 문맥과 함께 살펴보면 「明日は三島にお着きになるでようから、直ちにお目に掛らなければならぬことを、念のためにお知らせいたします」라는 의미이며 「直ちに」의 의미로 사용된 「すなわち」는 「お目にかかる、会う」를 수식하고 있다. 또한 「すなわち」는 명사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용례 (16)은 「明日は天氣がよさうだとこちらのもも申しますので、早々に出船致しましょう」로 해석되며 「そうそう」는 「出船する」라는 동사와 결합하여, 아직 행위가 행해지지 않은 비과거문에 출현하는 용례이다.

한편 용례 (17)과 (18)는 「はや」가 과거문과 비과거문에 자유롭게 나타나는 용례로서 「시간영역부사」가 시제(Tens)와 직접적 관계를 갖지 않음을 나타내는 용례라고 할 수 있겠다. 각각의 용례를 현대어로 해석하자면 (17)은 「受け取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早く返してください」이며 (18)은 「予想外に早く参りましたので」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시간부사를 시제(Tens)나 상(Aspect)과 호응하는 부사로 규정짓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시간부사

23) 가정조건의 종속절은 南不二男(1993)의 B類의 종속절에 해당한다.

내에 시제(Tens)나 상(Aspect)과 호응하는 부사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첩해신어』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는 「まもなくお着きになるでしょうから、その時お礼を申し上げますので」로 해석할 수 있으며 「程なく」는 「まもなく」로 풀이된다. 여기서 「程なく」는 「着く」를 수식하며 「から」 종속절에 포함된다.²⁴⁾

이상에서 살펴본 「순간부사」의 통사적 특징을 정리해 보면 1)동작성이 있는 동사를 수식하며, 2)과거문이나 비과거문에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으며, 3) 출현하는 종속절에 큰 제약이 없어 보인다는 점 등이다.

4.2. 「지속부사」의 통사적 특징

「지속부사」는 행위가 길게 계속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부사로서, 「순간부사」와 달리 일본어에서는 상(Aspect)의 표현과 호응하는 용례가 나타난다. 또한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동작이 아직 행해지지 않은 비과거문이나 동작이 이미 실현된 과거의 문장에도 자유롭게 출현한다. 다음은 그 대표적 용례에 해당한다.

(20) しうしつめつらしき御さうたんうけたまわり、⑥5表2

(21) つねつねせつくのひことにはいれい於しまるする。③15裏1

(22) しやうけたにんちうにてな加な加とうりうするもい加加ちやほとに、⑥3裏2

(23) せんねんもいくひさしう御ろんしらるやうにさしられて、③14裏1

(24) ひさひさくらうしたけにんとともに、⑧3表3

(20)은 「一日中興味深いお話をうけたまわり」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전후 문맥과 함께 살펴보면 「一日中お話を聞き、酒を飲んで、旅人の憂いを晴らしたでの嬉しい」라고 말하는 장면에 해당한다. 즉 「하루 종일, 종일」에 해당하는 부사 「しうしつ(終日)」는 이야기를 듣고 술을 마시는 동작성이 있는 동사를 수식하며 발화시에 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과거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しうしつ(終日)」가 종속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를 나타내는 문법요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21)의 용례는 「いつも節句ごとに拝礼をしています」로 해석할 수 있으며, 「いつ

24) 이유와 역접의 「が」의 종속절은 南不二男(1993)의 C類의 종속절에 해당한다.

も」에 해당하는 「常々」가 불완전상의 동작진행의 문장에서 나타난다. 『첩해신어』의 상(アспект)의 표현은 현대 일본어와 달리 「スル」가 불완전상의 현재진행형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²⁵⁾ (21)의 용례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용례 중의 「しまるする」는 「しています」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지속부사」는 그 어휘적 성격에서 상(アспект)의 표현과 공기할 수 있으나, 과거문이나 비과거문에 자유롭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アспект)의 표현을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용례 (22)을 전후 문맥과 함께 현대어로 해석하면 「上下多くの人々が長い間泊まるのも何ですので、とにかく早めに離れ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가 된다. 「長い間」에 해당하는 「長々」는 「泊まる」에 해당하는 「逗留する」를 수식하고 있으며, 아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비과거문에 해당한다.

(23)의 「ひしう」 또한 비과거문에 나타나는 용례에 해당하며 「て」 종속절에 포함되어 있다.²⁶⁾ 한편 (24)는 형식적으로도 과거 표현이 나타나는 문장에 「지속부사」가 사용되는 용례이다. 이 문장을 해석하면 「長い間苦勞をかけた下の者達に」가 되며, 여기서 「久々」는 「苦勞をかけた」라는 명사절을 수식하고 있으며 과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간영역부사」 내의 「지속부사」는 「순간부사」와 통사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통점으로는 1)동작동사와 결합을 한다는 점, 2)출현하는 종속절에 크게 제약을 갖지 않는다는 점, 3)과거문이나 비과거문에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나열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부사」는 그 의미적 속성으로부터 「순간부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상(アспект)의 표현과 공기하는 용례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 「진행부사」의 통사적 특징

「진행부사」는 행위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반복되어 행해짐을 나타내기 때문에 불완전상의 의미 속성을 지니고 있으나,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시제나

25) 이종희(2005:196)에서 『첩해신어』의 시제와 상의 체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完成相	不完成相	
非過去	スル	現在の動作継続 スル、シテイル	現在の結果継続 シタ、シテイル
過去	シタ(してござる)	シテイタ	

26) 「て」의 종속절은 南不二男(1993)의 A類의 종속절에 해당한다.

상과의 공기 제약은 보이지 않는다. 다음은 「진행부사」가 동작성이 강한 동사들과 결합하며 다양한 종속절 안에서 출현하는 용례들에 해당한다.

(25)さてわさいさい加み加たにのほりくた里、御たいきなことて御さる。③13裏3

(26)したいにな於るやうに御されとも、③3裏3

(27)このうゑわはち於と里於きひにまいて、⑨16表2

(28)ひにひにいれこうもく於もうまうしに於うせて、④24裏3

상기 용례를 현대 일본어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25)-1 「たびたび上方へ上り下りなさるのは、大変な事でございます」

(26)-1 「次第に治ってきたようですが」

(27)-1 「これからは恥じを思わずに、毎日参って」

(28)-1 「毎日入れる公木を馬と牛に背負わせて」

현대어 해석에서 알 수 있듯이 「진행부사」는 각각 「上り下りする」「治る」「参る」「入れる」 등의 술어를 수식하고 있으며 명사절과 종속절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과거문과 비과거문에 자유롭게 출현하며 의미 속성 상 불완전상의 문장에서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시간부사가 시제(Tens)나 상(Aspect)과의 호응을 문법적 조건으로 하는 부사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5. 맺음말

이상 『첩해신어』에 나타나는 「시간영역부사」를 살펴보았다. 「시간영역부사」는 그 의미 속성에 따라 「순간부사」「지속부사」「진행부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총 16종류의 어휘가 46회 출현하고 있다.

각 부사의 개수 양상을 살펴본 결과, 「すなわち」는 시간의 내적 양이 적은 「순간부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나 「어휘의 의미용법에 의한 개수」가 불가피하였으며 대응하는 원간본의 한국어 「즉시」는 개수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はや」와 「程なく」는 「もはや」와 「やがて」로 각각 1용례씩 개수되는데, 개수되지 않은 용례와 그 의미를 비교하였을 때, 동일 어휘가 문맥 속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우 「의미의 구체화·명료화를 위한 개수」로 파악하였다. 또한 「つねに」가 「さきごろより」로 개수되는 것은 문장의 중의적 해석을 피하고자 하는 「구문구조(構文構造)에 의한 개수」로 그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무々」가 다양한 한국어로 대응하는 용례를 고찰함으로써 동일 어휘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한국어를 통해 더욱 선명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점을 들어 『첩해신어』의 통사적(通史的) 가치와 더불어 대조언어학적 자료의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다뤄야 함을 논하였다.

또한 「시간영역부사」가 문장 안에서 과거문이나 비과거문에 자유롭게 출현하며 시제(Tens)나 상(Aspect)의 표현이 호응의 조건이 되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주로 동작성이 강한 동사를 수식하며 다양한 종속절 안에 나타나는 것을 검토하였는데, 이는 종래 「시간부사」를 시제나 상과 호응하는 부사로 분류하였던 것을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형식적 제약 없이 「시간영역부사」가 명제 안에서 후술하는 동사의 행위의 시간적 양을 구체화 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김기민(2004) 『捷解新語의 改修過程과 語彙研究』, 보고서, p.249.
 南広祐(1960) 『古語辞典』, 教学社, p.622, p.624.
 劉昌惇(1964) 『李朝語辞典』, 延世大学校 出版部, p.1174.
 박재환(2003) 『『捷解新語』의 副詞研究』, J&C, pp.19-20.
 李鍾姬(2005) 「『捷解新語』における副詞の研究」, 麗沢大学大学院 博士論文, pp.194-202.
 李鍾姬(2007) 「『捷解新語』의 「順序副詞」에 대하여」 『日語日文学研究』 第63号1卷, 韓国日語日文学会, p.449, p.453.
 이태영(1997) 『訳註 捷解新語』, 太学士, pp.19-354.
 林昌奎(1998) 「『捷解新語』における「を」格の誤用について」 『月刊 言語』 2、大修館書店, pp.116-121.
 鄭 光(2002) 『訳学書研究』, J&C, pp.428-475.
 조남덕(1994) 『捷解新語의 改修分析』, 書光學術資料社, pp.81-148.
 지경래(2002) 『『捷解新語』의 일본어 어휘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p.184.
 한미경(1995) 『『捷解新語』における敬語研究 I・II』, 박이정출판사, pp.4-6.
 梅田博之·林昌奎(2000) 「『捷解新語』의 使役構文」 『21세기 국어학의 과제』, 도서출판 月印, pp.39-60.

- 小倉進平(1964)『増訂朝鮮語学史』、西田書店、pp.414-434.
金水敏(2000)「時の表現」『日本語の文法 2 時・否定の取り立て』、岩波書店、p.10.
辻星児(1997)『朝鮮語史における『捷解新語』』、岡山大学文学部16、pp.31-42.
土井忠生・森田武他編訳(1980)『那訳 日葡辞書』、岩波書店、p.589.
中右実(1980)「文副詞の比較」『日英語比較講座 第2巻 文法』、大修館書店、p.165.
中田祝夫他編(1985)『古語大辞典』、小学館、p.886.
中村栄考(1969)『日朝関係史の研究下』、pp.397-422.
仁田義雄(2002)『副詞的表現の諸相』、くろしお出版、pp.201-206.
日本大辞典刊行会(1979-1981)『日本国語大事典』第7巻、小学館、pp.1009-1010.
浜田敦(1970)「副助詞など」『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研究』、岩波書店、pp.309-318.
浜田敦(1983)「えい・よい・よろしい」『続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研究』、臨川書店、pp.209-228.
増岡陸志・田窪行側(1989)『基礎日本語文法』、くろしお出版、pp.41-42.
松村明編(1995)『大辞林 第二版』、三省堂、p.1354.
南不二男(1993)『現代日本語文法の輪郭』、大修館書店、p.54.
森田武(1973)「捷解新語解題」『三本対照捷解新語 釈文・索引・改題編』、京都大学、pp.209-337.
安田章(1980)『朝鮮資料と中世国語』、笠間書院、pp.24-39、pp.386-413.

논문 투고 일자 : 2020. 02. 28.
논문 심사 일자 : 2020. 04. 24.
게재 확정 일자 : 2020. 04. 24.

< 要 旨 >

『捷解新語』における「時間領域副詞」について —한·일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李鍾姬

本稿は『捷解新語』に現われる「時間領域副詞」の改修様相と統語的特徴について検討したものである。「時間領域副詞」は異なり語数16語、延べ語数46語が現われるが、それらの副詞はそれぞれの意味属性によって「瞬間副詞」「継続副詞」「進行副詞」に下位分類できる。

改修様相としては、「すなわち」の全用例が「さっそく」に改修されているのは「すなわち」の「すぐ」という副詞としての「意味用法の変化によるもの」と考えられる。また「はや」と「程なく」はそれぞれ「もはや」と「やがて」に1用例ずつ改修されているが、原刊本に現われる同じ副詞であっても、その意味用法が異なる場合、その意味を明確にするために改修が行われたと思われる。このような改修を「意味の具体化・明瞭化のための改修」と称する。最後に「常に」が「先ごろより」と改修されているのは、原刊本の重意的な解釈を避けようとする改修と思われ、このような改修を「構文構造による改修」とする。このような改修様相は対応する韓国語との対照によって明らかになるものが多く、『捷解新語』の対照言語学的な資料の価値を強調したい。

統語的特徴としては、「時間副詞」に属する「時間領域副詞」は、過去文や非過去文に自由に現われることからテンスとアスペクトの要素が「時間副詞」との呼応の条件には成り立たないと思われる。また動作性の強い動詞を修飾すること、様々な従属節に現われることを検討した。これらのことから「時間領域副詞」はテンスとアスペクトの形式的な制約を受けず、修飾する動詞の物事が行われる時間的な量を具体化する副詞であると思われる。

A Study of the Time Domain Adverbs of *Cheophaesineo*

Lee, Jong-Hee

This study discussed the correction and syntactic properties of time domain adverbs (TDA) found in the Japanese language textbook of *Cheophaesineo*. The TDA can be classified into instant adverbs, persistent adverbs, and progressive adverbs, and in all, 16 categories of terms appear 46 times.

Considering the correction of each adverb, “sunawachi,” for example, is revised as “satsoku” when the semantics of “sunawachi” have changed, and it is understood as “the correction of semantic use of vocabulary.” There is one example each for “haya” and “hodonaku” corrected into “mohaya” and “yagatte,” respectively, and there is a difference in meaning when the same term is corrected and when it is not. Therefore, it was possible to identify it as “the correction for embodiment and clarification”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initial version. Moreover, “tsuneni” is corrected as “sakigoroyori” for “correction by form syntax” to avoid misinterpretation. The cause of such correction becomes more prominent when examined with the comparative Korean and discusses the syntactic value of *Cheophaesineo* and the value of resources in comparative linguistics.

In terms of syntactic properties, the TDA appear liberally in past tense and non-past tense sentences to show that the expression of tense or aspect was not required for better sound. Furthermore, the adverbs appear in various subordinate clauses, mostly describing highly dynamic verbs, which suggests the need to reconsider classifying the time adverbs to adverbs that correspond to tense or aspect. It is believed that the TDA specify the duration of action described by the verb that follows in a statement regardless of the sentence construction.